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



Q. 조직위원장으로서 10주년을 맞이하게 된 소감은?

1, 2회차 때는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다 3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인적으로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함께한 SID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10주년을 맞이한 SID를 조직위원장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Q. SID 2019의 대주제와 컨셉은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임플란트학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쳐왔다.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SID 2019에서는 지금까지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초창기에 SID가 처음으로 도입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토론 배틀, 전자투표 등 혁신적인 구성을 이번 10주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

Q. 각 세션과 세부 강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션 1에서는 임플란트 임상가들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인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합병증

과 같이 오랜 임플란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오래 살릴 수 있는 보철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사이너스와 GBR에 대한 10년의 변화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10년 전 생각과 오늘날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5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많은 임상가들이 향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꼽고 있다. 즉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안전하면서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느냐가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오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서저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김현종 원장(가야치과병원)이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의 재생 방법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합강연에서는 ‘Paradigm Shift in Implant Dentistry’를 주제로 미래에 주목받을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6가지의 아이템을 제시하고 패널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의 향후 10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 SID 2019를 기다리고 있는 임상가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SID를 10년 동안 지켜봐주고 사랑해준 임상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SID 2019는 지난 대회에서 제시했던 임플란트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임상가들의 귀한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걸맞는 좋은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조직위원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과신문 - 전영선 기자